

<현대시 분석 이론> By kbokbokk

-본 이론은 어떠한 강사의 이론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설명하는 방법론을 이미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내리겠습니다.

-본 방법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박광일 선생님의 <훈련도감> 과 이원준 선생님의 <1+3원칙 개념입문 - 문학>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이론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개를 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영리의 목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를 통해 표현을 한다고 이해하자.(적어도 수능 범주 내에서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적 대상”을 통해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시인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에(다이렉트로) 말할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숨겨가면서 말할까?

나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시적 대상” 과 “직접적으로 한번에 말할까? 아닐까?(=시에서의 ‘변화’ 유무)”를 중심으로 현대시를 분석할 것이다.

2. 현대시 분석의 이론 ①. 서술어를 중심으로 파악하라.

현대시의 이해는 서술어의 파악에서 시작된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이는가?

예를 들어 ‘짜장면’이라는 시어가 있다고 해 보자.

이 시 안에서 ‘짜장면’이라는 시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싶다면 ‘짜장면’이라는 시어에 대응되는 서술어를 보면 된다.

‘짜장면’ + 좋다 => 긍정적 의미

‘짜장면’ + 싫다 => 부정적 의미

즉, 화자가 ‘짜장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적 의미의 서술어가 오느냐 아니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이다.

내가 시에서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파악하라고 주장하는 목적은

우리가 느낌상으로, 근거 없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즉 시어의 느낌을 ‘감’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시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은 하나의 주관적 창작물이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시인(화자)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술어를 통해서 시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하는가?

그 시어가 이 시에서 긍정적으로 쓰였는지 (+)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 정도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서술어를 중심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뒤에 말할 시적 대상의 정서/상황/태도판단에 유용하게 쓰인다.

예시)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뭔가 못한다? 부정적 서술어가 계속 나오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자.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 아라비아 사막이 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뒤 서술어를 보니 '가자'고 하네? 아하. 화자가 가자고 하는 걸로 보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라비아 사막은 (+) 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이정도만 체크해도 굳. 그리고 '가자'에서 뭔가 의지의 냄새가 난다면 최고.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 체크해야 할 시어가 있나? 딱히 와닿는 건 없는데.. 그냥 '아라비아 사막' 이 어떤 곳인지 쪽 애기한 것 같다 라는 느낌만 드는데. 엄청 강렬하고 뜨거운 느낌?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 고독이 열렬하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독은 쓸쓸 허무 이런거 아닌가? 근데 열렬하대. 뭔지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롭고 쓸쓸한, 즉 (-)느낌의 고독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애도 (+)의 느낌으로 잡을 수 있겠네.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 '나'와 대면? '나'와 마주한다고? 근데 꼭 좋은 것 이랑만 마주한다는 보장 있나? 부정적인 현실에 마주하는 시도 제법 있으니.. 이것만으로는 긍정부정을 체크하기 힘들어 보여. 근데 앞 연을 잠깐 참고하면 고독 가운데에서 홀로 서면 그제서야 나와 대면하대. 그런데 앞에서 고독을 (+)의 느낌으로 잡았잖아? 그럼 여기서 마주하는 '나' 도 (+)의 느낌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 왜? 여기서 원인 결과가 있잖아. 원인이 (+) 인데 결과가 (-)일 리가 있나? 상식적으로 좀 오바스럽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부정적 서술어 나왔네. 즉, '나' 와 대면을 못하면 (-) 상황이 된다는 정도만 체크하자.

대충 서술어 중심으로 파악하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니?

어차피 수능 당일날 현대시를 내신하듯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만 잡고 가면 나머지는 <보기> 나 선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3. 현대시 분석의 이론 ②. 시적 대상을 잡아라.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시인(화자)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시에다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적 대상] 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

(1) 제목을 적극 활용한다.

시를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 화자가 어떤 것을 시적 대상으로 두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의 제목을 적극 활용하자.

예) 박남수, <아침 이미지1> (2016수능 기출)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을 한다.

☞ 잉? 처음에는 어둠얘기... 나중에는 아침얘기... 그럼 뭘 시적 대상으로 잡는 것이 더 나올까...? 앗! 근데 제목에 딱하니 아침 이미지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어둠보다는 아침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시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2) 반복되는 시어를 파악한다.

시인이 어떠한 시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의심하라. 그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담은 시적 대상일 확률이 높다.

예)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청년 화가 L을 위하여>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들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 딱 봐도 보이지 않나? 해바라기 + 긍정적 서술어.. 즉 시인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시적 대상은 해바라기.

☞ 잠깐. 뭐라고? 무덤도 반복하고 있다고? 자. 만약 무덤이 시적 대상이라고 치자. 앞에서 현대시를 읽을 때 시어에 대응하는 서술어를 보라고 했다. 그럼 무덤의 서술어를 보라. ... 딱 봐도 아닌거 느낌 오지?

(3) 어느 정도의 감각은 필요하다.

아니 필자양반. 앞에서 감각에 의존하는거 막는다면서?

자. 진정하시고. 내가 말하는 감각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

김수영, <폭포>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설사이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 음.. 누가봐도 시적 대상은 폭포 아닌가? 내가 말하는 감각은 이정도이다.

만약 너의 감각이 영 못미덥다면, 주로 화자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라. (사실 이정도도 파악 못하면.. 좀 심각하지 않니...TT / 위 시는 1연에서 화자가 폭포를 보고 있다는 정보를 바로 캐치할 수 있음.)

(4) 대립시어, 유사시어를 찾아라.

대립시어와 유사시어는 아래 예시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도록 하자.

예)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청년 화가 L을 위하여>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 돌을 세우지 말라.

☞ 비스 돌을 세우지 말래. 그럼 여기서 비스 돌은 (-)의 느낌이라는거. 잡을 수 있겠어?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 해바라기를 심어달라네? 심어달라면.. 상식적으로 나쁜 걸 심어 달라고 하겠니?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겠지. 그럼 여기서 해바라기는 (+) 의 느낌이겠네.

☞ 자. 그럼 (-) 의 시어와 (+)의 시어가 한 쌍이 나왔어. 그럼 둘 관계를 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립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향성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 보리밭을 보여달라고? 나쁜걸 보여달라고 하겠니 좋은걸 보여달라고 하겠니. 당연히 좋은 걸 보여달라고 하겠지? 게다가 해바라기의 사이로 보여달래. (+)의 대상이 있는데 굳이 보고 싶어하네? 그럼 여기서 보리밭은 (+) 의 느낌이겠네. 어? 그럼 해바라기도 (+), 보리밭도 (+)... 잘은 모르겠어. 근데 둘다 일단 (+) 로 방향성이 같으니 유사 시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Tip!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 높음.>

<Tip! 시적 대상이 '나', '자아', '나의 삶' 등 추상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화자가 반복해서 말하거나 보거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자. 이럴 때에는 보통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거울, 우물 등이 있다.>

4. 현대시 분석의 이론 ③. 직접적으로, 한번에(다이렉트로) 말할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숨겨가면서 말할까? (= 변화가 있나?)

<Cf. '⇒' 이 기호는 앞으로 선후성을 의미하는 기호로 쓸 것입니다. '선' ⇒ '후' >

내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시공간적 변화

(2) 정서의 변화 / 태도의 변화

이 역시 너무 깊게 판단하려고 들지 말 것. 감정의 변화 및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극복)의지의 유무이다. 일제 강점기 때의 시를 자주 접하다 보면 [자기반성 및 자기성찰, 탄식, 자책] ⇒ [현실극복 의지] 형태의 시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특히 운동주 시인의 시의 경우. 계속 말하지만 너무 집착하지는 말 것. 실제로 변화가 없는 시도 자주 등장한다. 만일 변화가 없다 싶으면 변화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변화가 있다 싶으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를 '⇒' 기호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ex) 기대했는데 상실감을 느끼게 됨 : 기대 ⇒ 상실감

5. 현대시 분석의 이론 ④. 의지 여부 파악하기

주로 명령형, 청유형, 다짐, 이러한 어조들이 의지를 담는 경우가 많다.

+ 극복의지와 그냥 의지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제시해 드리는 두 예시를 통해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1)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이 시는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연하지. 그런데 극복의지라고 볼 수 있는가? 음...
이 시만 두고 봤을 때는 어떠한 부정적 상황/현실/처지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어 보인다. <보기> 혹은 융합-독서 지문에서 별 다른 언급이 없다면 그냥 '의지적' 만 잡고 가자.

예시2)

윤동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괴로워한다는 서술어를 통해 (-) 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정도는 체크하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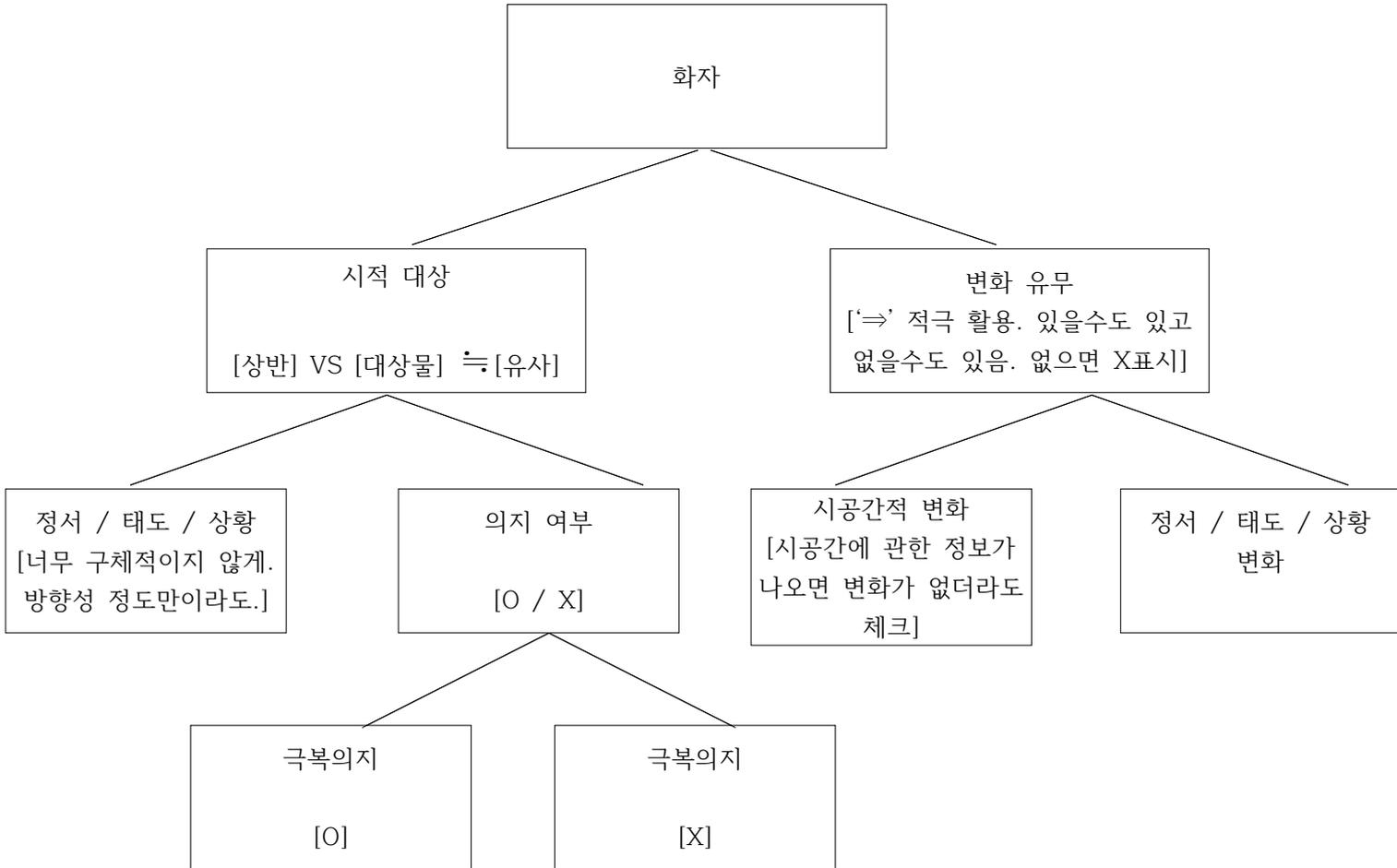
☞ 걸어가야겠다고 하네. ~해야겠다. 이정도면 상당히 노골적인 의지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보면 부정적 상황에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이것 극복의지라고 하는 거야. 즉, 극복의지는 시에서 의지적 태도보다 부정적 상황이 선행되어야 해. 그냥 의지적 시는 부정적 상황이 언급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너가 마라톤 대회에 나갈 때 '나는 꼭 완주를 할거야!' 라고 의지를 다짐하는게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니? 아니지! 이제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그냥 의지적인 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기>가 주는 여러 단서들을 통해 그냥 의지가 아닌 극복 의지로 바뀌서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6. 종합 판단 - 구조도 그리기

이 구조도는 이원준 선생님께서 문학을 해결하실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이항대립에 시의 내용을 대입하여 시를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제가 새로운 구조도를 창작한 것입니다.



7. 적용하기.

1) 유치환_ 생명의 서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향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쫓이리라.

화자

아라비아 사막

변화 유무

뭔가 부정적. (-)
고독
뭔가 긍정적. (+)

의지 여부
[O]

~아라비아 사막
⇒
아라비아 사막

(-) ⇒ 고독 ⇒ (+)

극복의지
[O]

극복의자
[X]

2) 김기택_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소리

어둠과 함께 방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속에서 들으니 **벌레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 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되 **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화자

풀벌레(풀벌레들의 작은 귀/
풀벌레들의 소리)
VS : 텔레비전, 브라운관의 빛

변화 유무

풀벌레 소리들 (+)
텔레비전, 브라운관빛
(-)

의지 여부
[O]

~어둠 ⇒ 어둠
~방안 ⇒ 방안

(-) ⇒ 풀벌레소리
들어옴 ⇒ (+)

극복의자
[⊖]

극복의지
[X]